

# 세월호 가족들도 “박근혜 퇴진!”

8 변백선 기자 | © 승인 2016.11.01 17:02



© 변백선 기자

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이 11월 1일 오전 비선대통령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“권력집단이 물러나야 진상이 밝혀질 수 있다”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기자회견을 개최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.16연대는 초유의 헌정농단 사태를 “민주공화국을 파괴시킨 '박근혜 게이트'라고 명하고, 그 주범역시 박근혜”라고 규정했다. 이들은 특히 “'박근혜-최순실 게이트'가 세월호참사 이전부터 최근까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”며 “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공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,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은폐된 것을 묵과할 수 없다”고 밝혔다.

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구체적 요구사항을 밝혔다. △은폐한 대통령의 7시간을 낱낱이 밝힐 것 △국정원까지 동원된 의혹 공개할 것 △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등 증거인멸, 진실은폐에 대해 시인할 것 △국회는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을 본회의에 즉각 직권상정 할 것 △양심선언으로 진실규명에 합류할 것 등이다.

더불어 유경근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선체인양공법 변경에 대해 비판도 덧붙였다. 해수부는 최근 세월호 인양 방식을 굴착 후 리프팅빔 설치 방식에서 '선미를 들어 한 번에 설치하는 방식'(선미들기)로 변경한다고 밝혔다. 그는 이에 대해 비판하며 “인양 생각이 없다면 당장 손을 떼라”고 규탄했다.



© 변백선 기자



© 변백선 기자





© 변백선 기자



© 변백선 기자



© 변백선 기자



© 변백선 기자



변백선 기자 n7349794@naver.com

